시 론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요정의 장난

지난 겨울, 설을 앞두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마주할 딸아이의 얼굴, 그리고 한참 재롱이 늘고 있는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과 아스라한 회한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신 뒤, 스무 명 가까운 형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왁자지껄하게 웃음꽃을 피우던 고향 집의 명절 풍경은 벌써 먼 추억이 됐다.

딸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라부지!' 하는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손자가 달려와 환한 미소를 한 아름 안긴다. 10개월 쯤 돼 한국으로 날 찾아왔을 때, 마치 전생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내 품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가슴이 아렸다. 작년 봄 돌잔치 때에도, 지난 여름 2주간의 여행 때도 아이는 심지어 엄마보다도 할아버지를 더 찾았다. 아무도 엄마인 자기를 이기지 못했는데 아빠만 예외라며 딸도 신기해했다. 귀국 후에는 매일같이 화상통화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화면 너머로 들리던 하부지 발음은 이제 제법 또렷한 하라부지가 됐다. 황혼기의 헛헛함을 손자가 채워주더라는 형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직접 만나보니 아직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손자가 그사이 폭풍 성장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조금은 수줍어하면서도 숫자 세기, 알파벳 맞히기, 동물과 곤충 이름 대기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다. 낯선 땅에서 자라면서도 우리말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게 하겠다는 딸아이의 야무진 고집이 아이의 입술 끝에 예쁘게 맺혀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어느새 어두워진 골목길로 나가 아이와 세발자전거를 탔다. 집의 뒤편에 있는 주차장 골목이 안전하고 넓어서 한참을 놀았다. 계속 타고 싶어 해서 골목을 빠져나가 큰길 인도를 따라 한 바퀴 크게 돌아 집의 앞쪽으로 향했다. 딸 집도 미국의 일반 집처럼 담장은 없고 길에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문이 설치돼 있다. 아이와 함께 작은 마당을 지나 거실 창을 보니 벌써 불이 꺼져 있었다.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상했다. 거실 출입문을 당겨보니 잠겨있었다. 손자가 "엄마!"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아이 손을 잡고 나무가 촘촘히 심긴 좁은 정원을 지나 부엌문을 찾았다.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불도 꺼져 있고, 답도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부엌 옆의 좁은 통로를 지나 주차장 옆 쪽문으로 갔다. 그 문을 열면 주차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문도 잠겨 있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시 부엌문으로 돌아가 몇 번을 더 두드렸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커튼이 스르르 걷히더니, 백인 노부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 게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연신 "아임 쏘리"를 연발하며 아이 손을 잡고 도망치듯 정원을 빠져나왔다.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내던 백인 부부는 아마도 도둑이 든 줄 알고 잔뜩 긴장했을 것이다. 집 구조가 같아 옆집을 딸 집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그 집을 나와 한 집을 더 지나치니 비로소 불이 환하게 켜진 딸의 집이 나타났다. 한 손으로는 손자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발자전거를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들어섰다.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같은 구조의 집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아내는 "당신은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며 핀잔을 준다. 나도 집 밖에서는 괜찮은 남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진면목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일갈한다. 더 대꾸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것이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미소로 화답했다. 아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이 어디 나뿐이랴.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백악관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유일한 두 사람이 부인과 장모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무사히 귀환했다는 안도감 덕분인지 아내의 잔소리가 싫지만은 않다.

아파트 단지도 아닌 주택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길치 노인네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밤의 요정이 걸어온 장난에 잠시 놀아난 것일 뿐 내가 아직은 그런 노인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첫날 밤을 맞았다. 나도 이렇게 조금은 터덕대며 나이를 먹어 간다.

문화난장

너는 너라서, 나는 나라서

이 현
아동문학가

"이것도 가져가렴"

결혼을 준비하며,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딸에게 뭔가가 가득 담겨있는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다. 뭐가 담겨있나 싶어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머리핀과 머리띠를 비롯해, 갖가지 장식품과 인형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세상에나! 이걸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셨다고? 한 때는 예쁘고 귀엽고 신기한 모양이라며 좋아했던 물건들이지만, 어느 새 쓸모를 잃어버린 물건들이었다.

"이건 네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온 머리핀이고, 이건 네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다녀오면서 사온 인형이고…. 이건 네가 엄청 좋아했던 초록방울 머리띠. 초록방울이 달랑이는 게 재밌다고, 머리띠를 하고는 깡충깡충 뛰어다녔잖아. 그리고 요거, 못난이 3형제 인형도 생각나지? 우는 얼굴,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네가 만날 못난이 인형들 표정을 따라하며 웃었잖아…." 어머니는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이셨다가, 함박 웃기도 하시며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놓으며 말하셨다. 그 옛날, 까마득한 일들을 어머니는 잘도 기억하고 계셨다. 딸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상자라도 어머니 곁에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에,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담아 그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고는 집을 나섰다.

"돌이네 흰둥이가 똥을 눴어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똥이에요."

1996년에 출간된 이후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은 흰둥이라는 강아지가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에 누고 간 강아지똥 이야기다. 처마 밑에 버려진 강아지똥이 비를 맞아 흐물흐물 그 덩어리가 녹아내리며 땅 속으로 스며들고, 강아지똥이 스며들어 녹아내린 곳에 민들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본 권정생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며칠 밤을 새워 썼다는 이야기로 존재와 쓸모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내고 있다.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는 놀림에 눈물을 흘렸던 강아지똥도,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는 어느 봄날, 부서진 채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별처럼 고운 민들레꽃을 피워낸 이야기다.

송아지똥이 등장하는 그림책도 있다.

"나는 똥이다." 로 시작하는 '송아지똥' 은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을 오마주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권정생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며 '창비어린이'에 발표했던 단편동화를 다듬어 그림책으로 만들었다. 권정생문학상, 한국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한 유은실 작가가 글을 쓰고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화가 박세영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으로, 어느 봄날, 빈집 마당 한구석에서 태어난 송아지똥 이야기다.

아랫마을 송아지가 빈집 마당에 똥을 누고 가 태어난 송아지똥은, '평화를 사랑하는 질경이'라는 뜻의 평이와, '리듬을 좋아하는 감나무'라는 뜻의 리듬감을 만나 친구가 되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에 비를 맞아 자디잘게 부서져 노오란 민들레 꽃을 피웠다는 전설의 강아지똥 이야기를 전해들은 송아지똥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자신도 평이의 거름이 되고 싶은 송아지똥. 하지만 송아지 똥이 태어난 곳은, 송아지똥 힘으로는 먼지만큼도 가를 수 없는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다. 기다리던 비가 내려 온몸이 말랑말랑해졌지만, 바닥이 흙이 아닌 시멘트라 스며들 수 없고, 흙으로 스며들 수 없는 만큼, 노오란 민들레꽃도 피울 수가 없다.

"쓸모가 없어서요."

얼마 전, 쓸모가 없어진 그림을 이젠 그리지 않는다는 지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쓸모가 필요하냐는 말을 하려다 멈칫, 입을 꼭 다물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쓸모도 없는 물건, 쓸모도 없는 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다. 쓸모가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왜,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걸까? 왜, 꼭 무언가가 되어야 하는 걸까. "거름 좀 못 되면 어때?" "귀하게 쓰이지 못하면 좀 어때?" 송아지똥을 향한 친구들의 다정한 마음처럼, 너는 너라서, 나는 나라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선물인걸. 어린 딸이 아꼈던 물건들을 소중히 보관해 놓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쓸모의 발견은 사랑인데 말이다.

독자투고

우회전 일시 정지,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 위원회는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홍보 및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23년-25년) 전남의 경우 우회전 교통사고는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2024년 3명, 2025년 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민들의 이해도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여전히 낮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히 상당수라는 점이다. 교통사고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법규를 위반하다 사고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그럼,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면 신호에 따라 우회전 진행하면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새내기 어린이들을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회전 일시 정지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다. 잠깐의 멈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생활 속 안전 습관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자.

〈김창희·순천경찰서〉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 군공항이전 소음피해 대책부터 소홀해선 안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을 공식 선정, 발표했다. 주민설명회 하루 뒤 이뤄진 법적 절차다. 의미있는 진전이다. 국방부는 향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 투표, 최종 이전부지 확정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핵심 키로 순조로울지 주목된다.

설명회 역시 찬성과 함께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특히 소음 대책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막겠다"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의료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향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예정된 30분을 3배 가까이 넘겨 1시간20분 가량 질의응답이 오갈 정도였다.

주변지역 지원 규모도 '1조원+α'로 구체화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주도 6자 협의체가 지난해 12월 공동합의문에 명시한 것으로 기부 대양여 차액 6천400억원과 광주시 자체 조달 1천500억원, 그리고 농업 디지털전환(AX) 플랫폼 구축·항공정비 MRO센터 등 10개의 정책 지원 사업 등이 제시됐다. 무안군이 획기적 인센티브로 내세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반도체 팹 유치, R E100 산단 구축도 청와대 등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13년 만에 첫 단계에 진입했다.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과거와 많이 달라질 것은 없다. 정부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적 지원 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잘 반영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

국가 자산이기에 앞서 주민들 삶과 맞닿아 있다.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 이주민 생계 보장을 위한 특단책도 마련해야 한다. 개발 이익 공유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국방부는 완충지역을 상당 부분 추가 매입, 소음 피해를 저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정말로 믿고 지켜볼 수 있도록 귀담아듣고 수용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여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안에 이전부지 확정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 교육통합의 시금석 광주·전남 성공을 위해선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국비 지원없는 형식적 통합은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비는 당장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를 위해 120억6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을 합치는 AI데이터센터에는 800억원, 상징(CI) 교체 등 최소한의 실무 비용을 더해 총 92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안정적 통합을 위해 양 교육청은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협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론 정보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정비, 조직·기구 및 정원 설계, 교육재정 및 공유재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교육과정 운영 등의 분야를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준비 단계의 사항들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연하게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 누구든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할 교육통합이 예산 확보에 가로막힌 현실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반영, 교육 재정지원 명문화 등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하겠다. 두 교육청은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보조하며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고 했다.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다. 앞으로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 행정통합의 시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국고 투입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교육청도 대정부 건의 내용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통합의 긍정적 시너지를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는 큰 결단이다. 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디카시 광장

그린나래 번지다

위혜숙

도두도두, 첫 발돋음
두근 세근 엄마 설렘

바람살에 접어둔 얼음박힌 나래짓
톡, 노란 불꽃 터지는 기쁨

※시작 노트

아파트 정원에 산수유 노란 불꽃 터졌다
꽃잎마다 맺힌 햇살이
아장거리는 첫걸음마 떼던 아기의 모습에
맘 설읍던 옛 생각에 잠시 젖는다
마른 땅 헤쳐 눈 뜨며 도두도두 거리는 생명들,
화사한 몸짓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봄의 손짓.

/광주디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瀕皓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 진 부 650-2080 논 설 실 650-2006 TV 본 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 고 문 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 업 본 부 650-2007 업 무 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